

20세기 후기 란제리의 구성 및 제작기법

- 슬립, 니커, 캐미 니커를 중심으로 -

김지연* · 전해정**

서울여대 의류학과 초빙교수* ·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

Immediate Constituent and Technics of Lingerie in the late20C

- Focused on Slip, Knickers, Cami-Knicker -

Jee-Yeon Kim* · Hei-Jung Chun**

Inviti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3. 18 투고)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duction technique and immediate constituent of lingerie by examining the materials and the sewing techniques. Various papers are referenced for theoretical study and the elements and techniques of lingerie are analyzed based on photographical materials. From the late 20C century to the present time was the research time period.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1. Decorative method: Lace, Ribbons, piping, elastic bands were some of the decorative materials attached to the garments by zigzag stitch.
2. Flat pattern making: Lingerie patterns were drafted in smaller size than the patterns of outer garments. Bias cut would be applied for the non-stretchable fabrics.
3. Draping: Bias grain would be applied for the non-stretch fabric. When draping stretch fabrics, follow the grain line of the fabrics and pull the fabric so that it could fit onto the body.
4. Production technique: Straight stitch would be applied for non-stretch fabrics. Zigzag stitch would be applied for stretch fabrics.

Key words: slip(슬립), knicker(니커), cami-knicker(캐미 니커), flat pattern(평면구성), draping(입체구성), production technic(제작기법)

I. 서론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고가 나타나고, 성적(性的)인 정 책, 현대의 기술, 패션 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 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경계선이 흐려져 겉옷 안에서 입혀 지는 의복뿐만이 아니라, 속옷이면서 겉옷으로 입혀 지는 의복인 이너 아우터웨어(inner outerwear)까지도 속옷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완벽한 복식이란 겉옷과 속옷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데 그동안의 많은 연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특징 때문에 겉옷에 치우쳐져 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속옷의 봉제 기법이나 디자인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겉옷으로 드러나고, 20세기 후반 이후 이너 아우터 웨어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속옷의 봉제 기법이나 제작과정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코르셋은 패셔너블한 겉옷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슬립드레스의 레이스 장식이 신체 노출을 허용하면서 더 이상 겉옷과 속옷과 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너 아우터 웨어가 정착되었다¹⁾. 그러나 그동안 속옷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속옷의 역사적 변천이나 종류의 나열²⁾³⁾⁴⁾⁵⁾⁶⁾, 속옷을 응용한 겉옷 디자인⁷⁾⁸⁾에 치우쳐져, 본 연구는 속옷의 봉제 기법이나 제작과정 등 속옷 구성의 근본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에 이르기까지 의복 구성 및 디자인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속옷의 범주⁹⁾중 인체를 장식하는 속옷의 소재 및 봉제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주로 이용한 속옷인 슬립¹⁰⁾(혹은 캐미솔)과 니커¹¹⁾, 캐미 니커¹²⁾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등 속옷 구성 요소와 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하고, 그림,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구성과 제작 기법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20세기 후기로 하였는데, 이 시기는 이너 아우터웨어가 가시화되어¹³⁾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II. 란제리의 구성 요소 및 기법

1. 란제리의 정의 및 범주

오늘날의 란제리는 프릴이 달리고 자수가 놓인 레이스 캐미솔에서부터 스포츠 브래지어뿐만 아니라 겉옷으로써 속옷까지 포함¹⁴⁾하지만, 원래 란제리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19세기의 화려한 속옷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속옷의 범주는 Koichi Tsukamoto에 따르면,¹⁶⁾ 기능에 따라 네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으며, 세 번째 범주는 20세기 이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슈미즈(chemise), 드로워즈(drawers), 팬티(panties) 등 체온 유지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를 교정하는 것으로 브래지어(brassières), 코르셋(corsets), 파운데이션(foundations) 등이 이에 속하며, 어떠한 효과를 위해 인체를 재조정, 축소, 확대시킨다. 이 범주를 코르세트리(corsetry)라 부른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과거의 파딩게일(farthingale), 후프(hoop), 버틀(bustle)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 매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프릴, 리본으로 장식한 슬립(slip), 캐미솔(camisole), 페티코트(petticoat)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장식적인 속옷을 살펴볼 것이다.

2. 소재 및 봉제 기법

본 장에서는 인체를 장식하는 속옷의 소재 및 기법을 알아보기 위해, 장식적인 소재로 많이 쓰이는 직물의 특성과 배치, 재단, 봉제 기법¹⁷⁾¹⁸⁾등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솔기처리, 밀단 및 가장자리 처리, 그 외 다양한 장식적인 봉제 기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장식적인 속옷에는 바티스트(batiste), 트리카트(tricot), 폴리에스테르, 자카드(jacquard), 실크 새틴(silk satin), 샤무스(charmeuse) 등의 비치고 매끄

러운 직물과 나일론 혹은 섬세한 면으로 된 레이스 직물이 많이 쓰인다. 이 외에도 단면 니트, 나일론 트리코트, 폴리에스테르 인터록, 신축성있는 레이스 등의 신축성 직물도 쓰인다. 신축성있는 직물 중 인체를 교정하는 속옷(코르세트리)은 200-300%의 신축성을 필요로 하나, 장식적인 속옷은 25-40%정도의 신축성이면 가능하다. <표 1>은 란제리에 많이 쓰이는 소재의 신축성있는 직물의 특성 및 봉제 기법¹⁹⁾과 다음 글의 비신축성 직물의 특성 및 봉제 기법을 요약하였다.

1) 비치고 매끄러운 직물

비치고 매끄러운 직물은 매끄럽기 때문에 재단이나 봉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패턴을 배치할 때는 종이나 패딩대 위에 올려놓고 한 방향으로 배치하며, 바늘이나 핀 등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핀은 수직으로 세워서 시집에 꽂는다. 표시는 모든 종류가 가능하나 왁스 타입은 피한다. 재봉틀의 바늘땀은 2~2.5mm/inch로 조절하고 재봉틀 바늘은 8호(60mm)에서 11호(75mm)를 사용한다. 손바늘은 8호에서 10호가 적당하며, 실은 가늘고 긴 폴리에스테르사, 실크 혹은 머서화된 면사 등을 사용한다. 봉제 요령은 편평한 피드(feed)노루발을 사용하고 새바늘로 자주 교체하며, 바느질하는 동안 바늘의 앞뒤에서 천을 적당히 당기듯이 스티치하여 천이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레이스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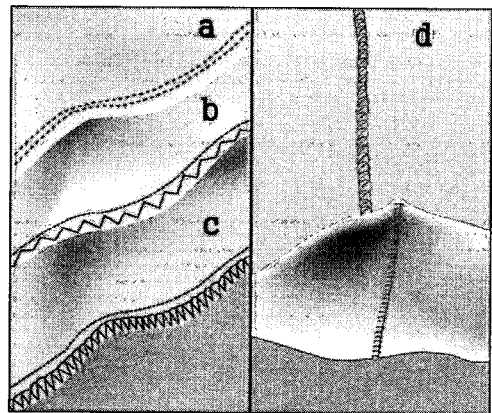
레이스 직물의 특성은 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잘라 쓸 수 있고 조각조각 이어 쓸 수 있지만, 레이스의 모양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필요하다. 식서는 없지만 경사보다 위사의 신축성이 크다. 패턴을 배치할 때는 돌출된 무늬, 반복되는 무늬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을 한 겹으로 놓은 방향으로 결면에 배치한다. 표시는 실이나 클립, 임시적인 마킹펜 등을 사용하고 추로 고정시킨다. 재봉틀의 바늘땀은 1.75~2mm/inch로 조절하고 장력이 가볍게 균형 잡히도록 맞춰 놓는다. 재봉틀 바늘은 8호(60mm)에서 10호(80mm)를 사용하며, 손

바늘은 5호에서 10호를 사용한다. 실은 섬세한 레이스에는 극세사, 두께감있는 레이스에는 다용도의 폴리에스테르사를 사용한다. 봉제 요령은 레이스 직물이 노루발에 걸리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를 감싸고 천천히 스티치하며 레이스 직물이 바늘판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레이스 아래에 습자지를 놓는다.

3) 봉제 기법

위와 같은 소재에 쓰이는 장식적인 봉제 기법은 다음과 같다.

술기 처리로는²⁰⁾ 술기를 스티치한 후, 한줄 더 스티치하는 이중 스티치(a), 지그재그 스티치(b), 오버록 스티치(c)하는 방법과 씹술, 통술, 편평봉술기(flatlock seam)(d) 처리가 있다. 편평봉은 천 결면을 맞대고 2-4줄의 실로 술기처리한 후, 술기가 겹치지 않고 편평하게 될 때까지 양쪽에서 천을 당겨 시집이 없도록 처리한 기법이다. 이것은 실이 천의 앞, 뒤 양면을 장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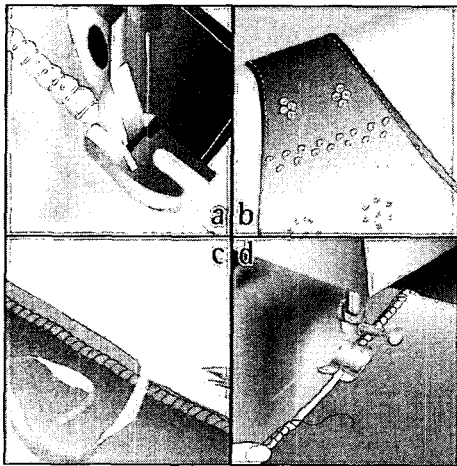


<그림 1> 기본적인 술기처리

밀단 및 가장자리 처리로는 좁은 스캘롭(scallop) 처리, 파이핑(piping)대기, 바운드(bound) 처리, 서지(serge) 처리, 리본(ribbon) 처리, 피콧(picot) 가장자리 edge)처리, 레이스(lace) 처리, 엘라스틱(elastic: 고무줄이 든 천) 처리 등이 있다.²¹⁾²²⁾

좁은 스킨롤 처리는 말아박기 노루발로 바꾼 뒤, 천 겹면에서 긴 지그재그 스티치를 하여 밑단을 스킨롤처럼 보이게 하며 우아한 느낌을 더해준다(그림 2(a)).

파이핑대는 것과 바이어스 단으로 감싸는 바운드 처리의 경우, 몸판과 같은 색상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반대 색상으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대조적으로 장식할 수 있다(그림 2(b)).



<그림 2> a:스킨롤, b:바운드·리본처리
c,d:피콧처리

서지 처리는 서지(serger)라는 오버록 기계로 꿰매기, 가장자리 처리, 감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오버록 봉과 편평봉으로 나뉜다. 이들은 실의 종류와 색상을 달리하여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²³⁾

리본 처리는 리본을 천위에 탑 스티치 혹은 좁은 폭의 지그재그 스티치로 덧대는 방법과 리본으로 가장자리를 감싸는 바운드 처리가 있다. 리본으로 바운드 처리할 경우, 리본의 가장자리는 울풀림 방지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천의 안쪽에서 리본의 가장자리와 함께 스티치 한 후, 리본을 반접어 천의 겹면과 리본의 가장자리를 폭이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2(b)).

피콧 가장자리 처리는 니트에 주로 쓰이며, 블라인드(blind) 스티치, 오버에지(overedge) 스티치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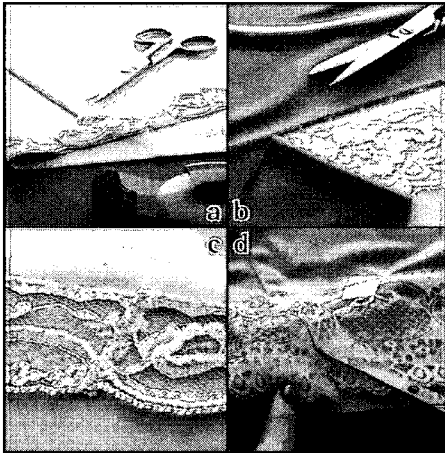
은 블랑켓(blanket) 스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밑단이나 가장자리를 3/8" 시접을 두고 자른 뒤 천 안쪽으로 접어 다리고 재봉틀 스티치 폭을 넓게 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블라인드, 오버에지 혹은 블랑켓 스티치 한다. 의복 안쪽에서 스티치선 가까이 남은 시접을 잘라낸다(그림 2(c)). 만약, 다른 색상으로 덧대어 장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천조각(가로: 1½", 세로: 원하는 길이+ 1"-2")을 잘라 안끼리 만나게 세로로 반 접는다. 의복 겹면 가장자리와 바이어스 조각 가장자리를 만나게 놓고 3/8" 들어가 스티치한 후(그림 2(d)), 의복 안쪽으로 바이어스 조각을 넘겨 겹면에서 블라인드, 오버에지 혹은 블랑켓 스티치한 후, 의복 안쪽에서 스티치선 가까이 남은 천을 잘라낸다.

레이스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이스는 여러 종류²⁴⁾가 있으며, 란제리에 레이스 장식을 더한다면 여성스러운 느낌뿐만 아니라 섹시한 느낌도 더해줄 것이다. 란제리에 많이 쓰이는 레이스로는 갈룬(galloon), 에징(edging), 플라운스(flounce), 인서션(insertion), 비딩(beading), 아플리케(appliqué) 등이 있다. 갈룬(그림 3(a))은 레이스의 양쪽 가장자리가 스킨롤로 되어 있어 밑단 처리에 많이 쓰이고 레이스 모양대로 잘라 쓸 수도 있다. 에징(그림 3(b,c))은 레이스 가장자리 한쪽은 직선으로 의복에 연결되고 가장자리 한쪽은 스킨롤로 되어 가장 바깥쪽 밑단으로 쓰인다. 주로 폭(1/4"-6")이 좁으며, 러플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플라운스는 에징보다 폭(6"-36")이 넓으며, 의복의 가장자리 혹은 일부분으로 쓰인다. 인서션(그림 5(a))은 가장자리가 주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의복의 중간에 장식적으로 들어간다. 비딩은 레이스에 리본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다양한 색상의 리본으로 장식할 수 있다. 아플리케(그림 14(b,c))는 독립된 레이스 모티브를 의미하며, 레이스에서 잘라 쓸 수도 있고 독립된 모티브들을 조각으로 이어서 개성에 따라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레이스를 의복에 장식하는 방법²⁵⁾ 원하는 부위에 레이스를 얹고 편이나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a), 겹면에서 레이스의 안쪽 가장자리를 좁게 지그재그

스티치 한다. 의복의 안쪽에서 스티치한 부분이 천을 잘라낸다(b). 레이스 겹치는 부분은 레이스의 문양에 관계없이 솔기를 따라 직선으로 스티치하거나(c) 주요 문양을 따라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스티치한 후에 여분의 레이스는 스티치선 가까이 잘라낸다(d). 레이스는 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스티치한 선 가까이 잘라내도 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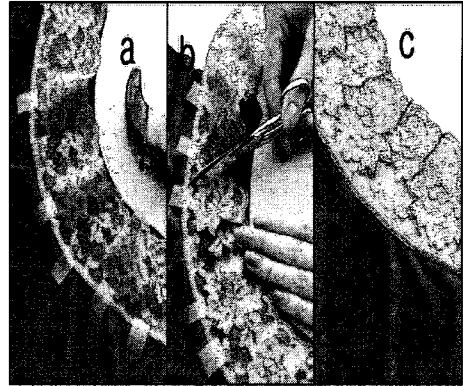


<그림 3> 직선 레이스 장식²⁶⁾
(Sewing Lingerie, p. 41, 42, 44)

만약, 의복의 가장자리가 곡선이라면 곡선에 맞춰 의복 겉면에 레이스를 올려놓고, 테이프나 핀으로 고정시킨다.(a). 레이스가 편평하게 놓이도록 레이스 모티브를 따라 가위로 자른다(b). 의복과 겹쳐진 레이스의 가장자리 안쪽을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하고, 겹쳐진 의복을 안에서 잘라낸다<그림 3b참고>. 레이스의 모티브에 맞춰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하고 스티치선 가까이 겹쳐진 레이스를 잘라낸다(c)<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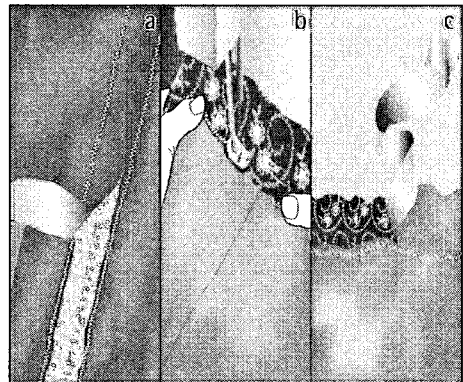
인서션으로 레이스 장식할 경우, 의복의 겉면에 레이스를 올려놓고 테이프나 핀으로 고정시킨다. 레이스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한 후, 레이스와 겹쳐지는 의복은 안쪽에서 1/8"정도 천을 남기고 잘라낸다<그림 5(a)>.

신축성있는 레이스를 댄다면, 레이스 엘라스틱의 길이는 의복 가장자리 길이의 10%-20%정도 짧게



<그림 4> 곡선 레이스 장식²⁷⁾
(Sewing Lingerie,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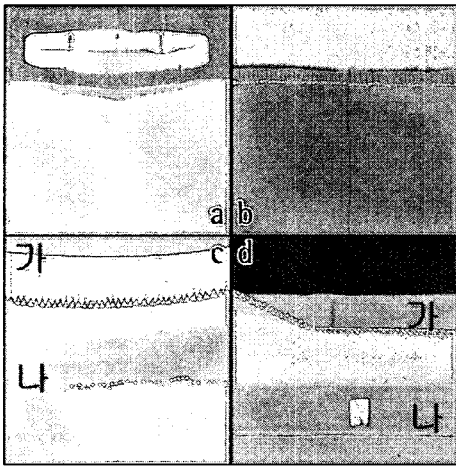
준비한다.²⁸⁾ 의복과 레이스 엘라스틱을 4등분(혹은 6, 8등분)하여 각각 핀을 꽂은 후, 각각 등분에서 만나게 한다<그림 6(a)참고>. 레이스 엘라스틱을 의복 겉에 올려놓고 가장자리끼리 만나게 한 뒤, 레이스 엘라스틱 밑면을 중간 폭의 지그재그로 스티치한다(b). 의복 안쪽에서 1/8"정도 천을 남기고 잘라낸다(c)<그림 5>.



<그림 5> a:인서션, b,c:레이스 엘라스틱대기

이 외에도 다양한 장식을 위해 색실로 레이스의 모양을 따라서 의복 겉면에서 지그재그 스티치로 채우거나, 손바느질로 천 혹은 레이스의 모양을 따라 비즈로 장식하거나<그림 2b> 리본으로 다양한 패턴을 수놓는다면 레이스의 디자인을 강조할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 줄 수 있다.

엘라ستيك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엘라ستيك 밴드 양끝을 1/2" 겹쳐 지그재그 스티치로 잇는다. 의복과 엘라ستيك 밴드를 각각 4등분(혹은 6, 8등분)하여 편을 쫓는다 (a). 의복의 겹에 엘라ستيك 밴드를 놓고 각각 등분한 지점이 만나게 하여 밴드를 당기면서 밴드 아래 쪽을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엘라ستيك 밴드를 안쪽으로 넘겨 밴드를 당기면서 밴드 다른 쪽을 지그재그 스티치한다(b)<그림 6>.



<그림 6> 엘라ستيك 밴드대기

먼저, 의복에 엘라ستيك 밴드를 직접 대고 스티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밴드 넓이에 여유분 1/8" 정도의 시접을 의복 가장자리에 더하고, 의복 겹에서 시접 위에 밴드를 올려놓고 당기면서 밴드 아랫단을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6(c,가)> 밴드를 안으로 넘겨 당기면서 밴드 아랫단을 좁은 쪽의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6(c,나)>.

이 외에도 케이스를 만들어서 엘라ستيك 밴드를 넣는다면, 밴드 넓이에 여유분(1/8"-1/4")을 더한 시접을 의복 가장자리에 더한다. 시접에 밴드 넣을 구멍을 만들거나 뒷중심 혹은 옆중심에 밴드 들어갈 트임을 주고, 시접을 의복 안으로 접어 시접 밑단을 의복과 같이 스티치한다<그림 6(d,가)>. 구멍으로 밴드를 넣은 후 밴드 양끝을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로 겹쳐 막는다<그림 6(d,나)>.

이상과 같이 장식적인 소재로 많이 쓰이는 비치고 매끄러운 직물과 레이스 직물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 소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솔기·밑단 처리 및 장식적인 봉제 기법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슬립(캐미솔), 니커, 캐미 니커 등의 장식적인 속옷 제작 방법에 신축성·비신축성 직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즉, 비치고 매끄러운 직물 혹은 레이스 직물이 비신축성일 때는 그에 합당한 처리

<표 1> 신축성에 따른 직물의 특성 및 봉제 기법

	신축성 직물	비신축성 직물	
		비치고 매끄러운 직물	레이스 직물
특성 (신축성 정도)	한방향 혹은 양방향 스트레치, 25-40% 신축성	신축성없음 매끄러움	신축성없음 올이 풀리지 않음
패턴 배치	겉면 한 겹에 배치	겉면한겹에 한방향배치	겉면한겹에 한방향배치.
재봉틀조절/ 바늘 호수	1.5-2mm/inch 8호(60mm)-14호(90mm)	2-2.5mm/inch 8호(60mm)-10호(90mm)	1.75-2mm/inch 8호(60mm)-10호(90mm)
실	면/폴리에스테르사	실크, 머서화된 면사 폴리에스테르사	극세사 폴리에스테르사
솔기	당기면서 직선 스티치, 지그재그 스티치, 오버록, 엘라ستيك 덧대기	이중스티치, 통솔, 쌈솔 오버록, 편평봉 솔기	갠룬, 예징, 플라운스, 인서션, 비딩, 아플리케 이중스티치, 오버록
봉제 요령	· 지그재그 스티치의 폭과 간격조절 · 당기면서 스티치	편평한 노루발 사용, 새바늘로 자주 교체, 당기듯이 스티치	습자지놓고 노루발을 투명 테 이프로 감싸고 천천히 스티치

만약, 엘라ستيك 밴드와 의복의 색상이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복 안에 밴드를 넣는다.²⁹⁾

방법을 활용하여 겉옷과 마찬가지로 직선 스티치로 하며, 신축성 직물일 때는 천을 당기면서 직선 스티

치 혹은 지그재그 스티치의 폭과 간격을 조절하면서 스티치한다. 레이스의 경우는 울이 풀리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레이스 모양을 따라 지그재그 스티치한 후, 스티치 선 가까이 잘라 낸다.

3. 품목별 기법

본 장에서는 슬립(캐미솔), 니커, 캐미 니커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등 속옷의 구성 요소와 기법을 살펴 볼 것이다.

1) 슬립(캐미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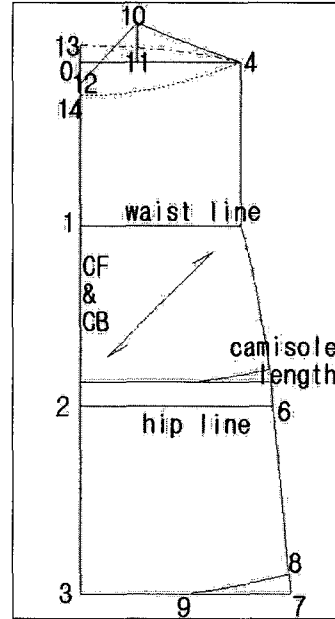
슬립은 페티코트가 허리 위로 연장되어 어깨끈이 달린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날씬한 원통형의 원피스형 속옷으로 1910년대에 프린세스 슬립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슬립이 되었다³⁰⁾. 이것은 상·하의가 붙은 콤비네이션이며, 상의만인 경우 캐미솔(camisole)이라 부른다. 또한 캐미솔과 니커(knicker)가 붙은 캐미 니커(cami-knicker)를 프린세스 슬립의 전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모두 유사한 소재가 쓰인다.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 스위스 보일(swiss voile), 코튼 론(cotton lawn),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 비신축성 직물이 외에도 신축성 직물도 많이 쓰인다.

(1) 평면 구성

평면 구성은 신축성의 정도에 따른 다프선의 유·無로, 인체에 밀착되면서 퍼지는 원피스형과 프린세스 스타일, 브래지어가 연결된 듯한 브라 탑(bra top) 스타일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7>의 슬립(캐미솔) 패턴³¹⁾은 비신축성 직물의 다프 없이 제도된 원피스 형으로, 앞·뒤판인 동시에 V-넥라인 슬립과 직선-넥라인 슬립의 두 종류가 제도된 것이다.

기본 라인을 살펴보면, 라인 0~1은 가슴에서 허리까지, 1~2는 허리에서 힙까지, 2~3은 원하는 슬립 길이이다. 만약, 캐미솔을 원한다면 힙선보다 약간 위로 제도한다. 0~4는 가슴둘레를 4등분하여 여유분 1/2"를 더한 길이이며, 1~5의 길이도 이와 같



<그림 7> V넥라인(실선), 뒷판(점선)
직선 넥라인 슬립(1점 파선)

다. 즉, 트임없이 머리 위로 써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슴 둘레와 허리 둘레가 같다. 2~6은 힙둘레를 4등분하여 여유분 3/4"를 더한 길이이며, 3~7은 힙둘레를 4등분한 길이에 2½"를 더한 길이이다. 8은 7에서 1/2"올라간 길이이며, 8~9는 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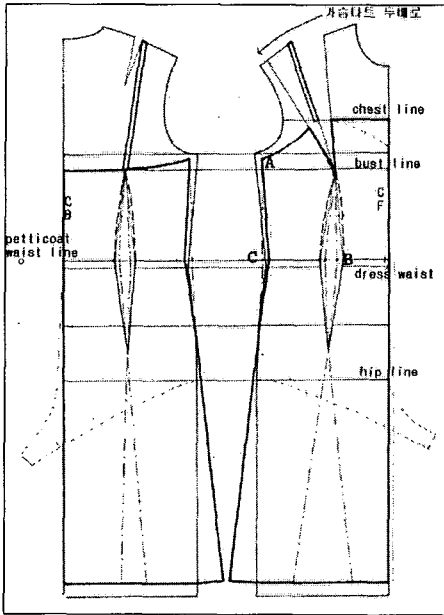
V-넥라인 슬립의 패턴을 보면, 라인 0~11은 앞중심에서 유두점까지 길이이다. 10~11은 보통 4"-6"로 가슴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결정되며, 11윗선 상에 어깨끈을 단다. 0~12는 1/4"-1"이며, 10~12는 직선으로, 10~4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2-2½"정도 넓이로 넥라인 안단을 그린다.

직선-넥라인 슬립의 패턴을 보면, 0~13은 2"-3"이며, 13~4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또한 13에서는 1"정도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뒤판은 다음과 같다. 0~14는 3"-4"이며, 14~4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앞판과 마찬가지로 14에서 1"정도는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5°방향(바이어스)으로 식서를 정한다.

<그림 8실선>의 슬립 패턴³²⁾은 비신축성 직물의 다프선이 있는 기본 페티코트 슬립으로, 기본 바디스 블록(basic bodice block)³³⁾을 발전시킨 것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프린세스 라인 슬립(그림 8의 1점 파선)과 브라 탑 슬립(그림 9)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밀착된 맞음새를 위해 기본 바디스를 축소시키는데, 기본 슬립의 허리선은 기본 바디스의 허리선에서 %¹올리고, 옆선은 진동점에서 %¹“낮추고 $\frac{1}{2}$ ”들어간다(그림 8의 A). 이렇게 올려준 허리선은 줄어든 패턴 비례에 적합하다. 가슴과 허리 사이의 인체 곡선에 좀 더 잘 맞추기 위해 허리 다트에서 3/16” 들어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밑단의 퍼짐 정도는 원하는 디자인 선만큼 넓힌다. 앞판은 가슴 다트, 뒤판은 허리 다트 연장선상에서 어깨끈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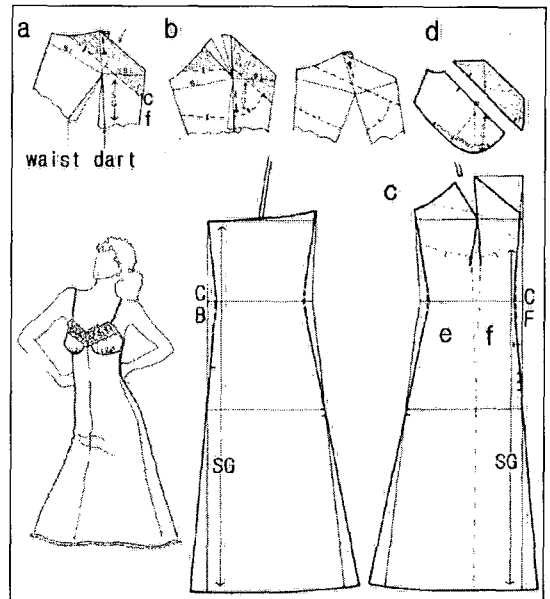


〈그림 8〉 기본 페티코트(실선), 프린세스 슬립(1점 파선), 캐미 니커(점선)

이 패턴으로부터 발전된 프린세스 라인 슬립은 다음과 같다. 매끄러운 맞음새를 위해 가슴 다트는 두 배로 하지만, 트임없이 머리 위로 써서 착용하려면 허리 둘레는 가슴둘레만큼 늘려 주어야 한다. 즉, 기본 슬립에서 허리 다트를 %¹씩 늘려주고(그림 8 B) 옆선은 %¹“나간다(그림 8 C). 웨이스트 다트 끝에서 밑단까지 다트선을 연장하여 프린세스 라인을 만드며, 연장선의 각도는 원하는 밑단 플레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슬립의 윗단선을 부드럽

게 그린다(그림 8 1점 파선). 식서(SG)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한다면 더욱 여유분이 생길 것이다.

신축성 직물일 경우, 다트를 제거한 브라 탑 슬립은 다음과 같다. 신축성 있는 직물의 식서는 천을 당겨 보아 경사 혹은 위사 중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정한다. 기본 프린세스 라인 슬립의 외곽선을 옮겨 그리고, 허리 다트는 가슴 아래 정도까지만 옮겨 그린다. 사이즈 8일 경우, 허리둘레가 30”정도 되게 앞, 뒤 각 허리선을 같은 양으로 줄인다(size 10: 32 $\frac{1}{2}$ ”, size 12: 34 $\frac{1}{2}$ ”)(그림 9). 다른 종이에 가슴 부분만 옮겨 그리고 떼어 낸다. (a)처럼 다트를 닫고 브라 윗컵 선을 완성하고, (b)처럼 다트를 닫고 브라 아래컵 선을 완성한다. 아래컵 다트를 힙선까지 연결하고(c의 점선), 밑단까지 수직으로 내려 (e)와 (f)를 붙여 한 패널로 다시 제도하여 다트선을 없앤다. (d)는 다트를 모두 닫은 완성된 패턴이다(그림 9).



〈그림 9〉 브라탑 슬립 드레프트

이상과 같이 비신축성 직물일 경우 유연한 흐름과 여유분을 위해 식서 방향을 바이어스로 하고, 다트선이 있는 경우 매끄럽게 밀착된 맞음새를 위해 가슴 다트는 두 배로 늘려주지만, 다트선이 없는 경우 머리 위로 써서 착용하기 때문에 가슴둘레와 허

리들레만큼 넓혀 준다. 신축성 직물일 경우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를 정하고 가슴이나 몸판에 트션없이 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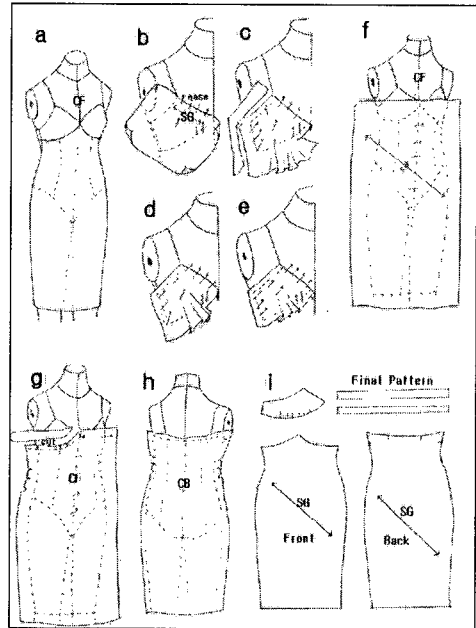
(2) 입체 구성³⁴⁾

천은 (윗단에서 밑단까지 길이+4")×(힙넓이+4")의 길이로 준비하고 식서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한다. 이처럼 슬립(혹은 캐미솔)은 유연하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천을 조절하기 힘들므로 앞중심에 실표시를 한 후 드레이핑을 시작하며, 앞중심에 꿰은 핀에 의해서 조절된다.

㉑와 같이 바디(body)에 테이프를 두르고 드레이핑은 오른쪽 한쪽에 한다. ㉒ 가슴 부분에 천(10"×10")의 식서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여 유두점에 핀을 꿰은 뒤, 앞중심에서 어깨끈 쪽으로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천이 놓이도록 드레이핑한다. ㉓약간의 여유분을 주면서 어깨끈 부분에서 옆선으로 향하면서 핀을 꿰고 시접분을 제외한 천을 잘라낸다. 옆선에 핀을 꿰고 남은 천은 가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㉔가슴 아래에 모인 천을 시접분을 제외하고 잘라낸다. ㉕ 가슴 아래 모인 천을 턱(tuck) 혹은 개더로 처리한다. ㉖바디에 천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올려놓고 앞중심에 핀을 꿰는다. ㉗미드리프 부분에서 옆선으로 부드럽게 천을 보내고 가슴 아래 부분에 핀을 꿰은 뒤, 가슴 부분의 불필요한 천을 잘라낸다. 옆선에 핀을 꿰으면서 가윗밥을 주고 시접분을 제외한 천을 잘라낸다. ㉘뒤판도 앞판과 마찬가지로 미드리프 부분부터 시작하여 옆선을 처리한다. 어깨끈 길이를 정하고, 표시한 뒤 천을 떼어낸다. ㉙ 왼쪽 천에 옮긴 뒤 패턴을 완성한다<그림 10>.

신축성 직물을 드레이핑할 경우, 신축성이 큰 경사 혹은 위사를 식서로 정한 뒤, 앞중심에 핀을 꿰고 유두점에 핀을 꿰는다. 유두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천을 내려 허리 다트 분량을 잡아 핀을 꿰는다. 주름지지 않게 옆선에 핀을 꿰고 가윗밥을 넣는다. 뒷중심과 어깨등뼈선(shoulder blade)에 핀을 꿰고 어깨등뼈선에서 수직으로 천을 내려 허리 다트분량을 잡아 핀을 꿰는다. 뒤판 옆선을 앞판과 같은 방법

로 한다. 허리 다트 분량이 없어지도록 앞판과 뒤판의 옆선을 같이 당겨 핀을 꿰는데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때, 천을 당겨서 드레이핑하므로 각 솔기선의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봉제시 당기면서 스티치하므로 4"이하는 무시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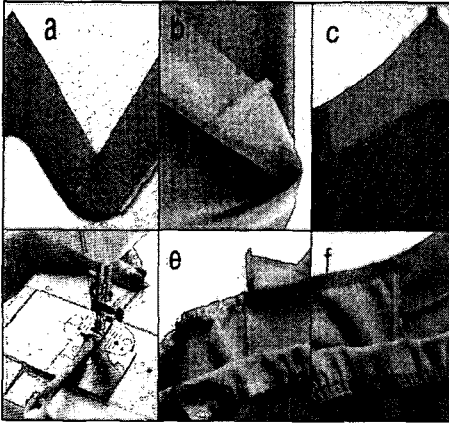
<그림 10> 슬립 드레이핑

이상과 같이 비신축성 직물일 경우 식서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고 드레이핑 하여 인체에 매끄럽게 맞도록 한다. 신축성 직물일 경우, 신축성이 큰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하고 천을 약간 당기면서 드레이핑하여 인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비신축성 직물의 바이어스 식서 방향, 최소한의 다트·솔기는 최상의 배합이지만 바이어스 식서로 인해 천의 소요가 많으므로 대량 생산에서는 신축성 직물로 원가를 절감하기도 한다.

(3) 제작 기법³⁵⁾

제작 기법은 비신축성 직물의 캐미솔로 살펴볼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슬립은 캐미솔의 길이가 연장된 것이다. 천을 한 겹으로 하여 바이어스 방향

으로 패턴을 배치하고 재단한다. 시접은 직선4"~곡선3/16"를 준다. 재단하거나 봉제시 천이 미끄러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천 아래에 습자지(tissue paper)를 깐다.



〈그림 11〉 슬립 제작기법³⁶⁾
(Lingerie Secrets, pp. 37-41)

㉠ 앞판에서 2"넓이로 안단을 만든다. 안단의 밑단은 4"를 접어 다린 후 가장자리를 한번 더 스티치하는 에지 스티치(edge stitch) 한다<그림 1a>. 안단을 넣지 않는다면 겔룬, 예징, 플라운스, 아플리케 등의 레이스<그림 3.4>나 피콧, 리본 등의 가장자리 처리<그림 2>로 네크라인을 장식할 수 있다.

㉡ 옆선을 이은 후, 통솔 혹은 서지 솔기로 처리한다. 바이어스 재단에는 통솔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바이어스 재단이기 때문에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면서 스티치하지 않는다<그림 1b>.

㉢ 어깨끈을 만든다. 천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14"~17" 길이)×(원하는 어깨끈 넓이+시접분 1/2")로 자른다. 겔끼리 맞대고 1/4"시접을 두고 스티치한 후, 루프를 천 끝을 잡고 겔으로 뒤집고 다림질한다.³⁷⁾ 이 때, 어깨끈의 길이는 4"-5"(직선 네크라라인인 경우, 5"-6")가 적당하다<그림 11d>.

㉣ 앞판의 겔에 어깨끈, 안단의 순서로 올려놓고 1/4" 시접을 두고 네크라인을 스티치한다. 바느질은 한쪽 옆선에서 앞중심을 향하고, 다시 다른쪽 옆선에서 앞중심을 향해 스티치해야 천이 밀리지 않는

다. 이때, 안단 옆선은 그림처럼 안쪽을 향해 접은 뒤 스티치한다. 겔면에서 안단 솔기선이 안보이도록 다림질한다<그림 11c>. 만약, 직선 네크라라인인 경우, 레이스 엘라스틱을 대도 좋으며 기능적·장식적인 기능을 더해줄 것이다<그림 5b, c참고>.

㉤ 뒤판 윗단은 3/8" 엘라스틱을 낸다. 엘라스틱의 길이는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뒤판 윗단의 길이보다 1"-3" 정도 짧게 한다. 윗단 시접 안쪽에 엘라스틱을 대고 천과 함께 당기면서 엘라스틱 아래쪽을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11e, 6b, c참고>.

㉥ 뒤판 윗단 시접을 안으로 넘겨 엘라스틱의 다른 쪽을 뒤판과 함께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겔면 안단 옆선을 손으로 스티치하여 마무리한다<그림 11f>.

㉦ 밑단을 윗글에 설명한 봉제 기법 중에서 선택하여 완성한다<그림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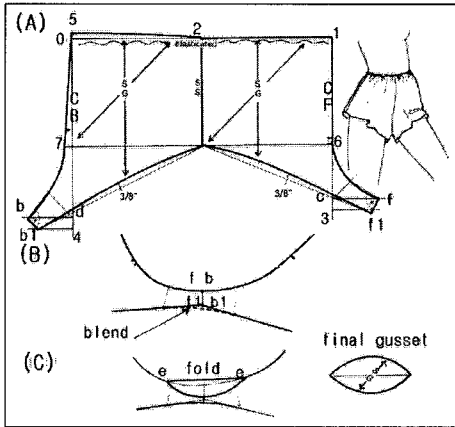
만약, 제작 후에 어깨끈이 내려가는 문제점이 있다면³⁸⁾ 뒤판의 어깨끈을 뒷중심쪽으로 옮긴다. 또한 가슴부위가 밀착하지 않을 경우, 착용 후에 다트를 만들어 주고 접힌 선을 부드럽게 이어 다시 옮겨그린다. 이 외에도 목선의 높낮이는 <그림 7>패턴에서 0~10, 10~11 높이를 조절한다.

이상과 같이 제작 기법을 살펴보았다. 비신축성일 때는 일반 소재에서 쓰이는 봉제 기법을 쓸 수 있으며, 천이 밀리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축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당기면서 직선 스티치, 지그재그 스티치하거나 엘라스틱(레이스)을 대어 지그재그 스티치하며,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지그재그 스티치의 폭과 간격을 조절한다. 솔기나 밑단은 윗글에서 설명한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을 적용한다.

2) 니커

니커의 프렌치 스타일은 인체에 혈렁하게 맞고 다리에서 퍼진 스커트 스타일 때문에 '스커트 니커(skirt knicker)'로도 알려져 있다. 본 장에서 니커는 허리에 고무 밴드가 들어가고 다리에서 퍼진 일반

적인 스타일로 살피볼 것이다.



〈그림 12〉 니커 드레프트³⁹⁾
(Lingerie Design on the Stand, p. 49)

(1) 평면 구성⁴⁰⁾

니커의 평면 구성은 비신축성 직물로 허리에 고무 밴드가 들어가고 밑단에서 퍼진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로 살피볼 것이다.

〈그림 12의 A〉를 보면, 0~1(Waist Line)은 힙 둘레에 여유분 2"를 더한 뒤 반으로 나눈다. 그 중심이 2이며 옆솔기(Side Seam)이다. 1~3(C.F.)은 밑위 길이에 1%"를 더하고 0~4(C.B.)는 밑위 길이에 2%"를 더한다. 각각 3과 4로부터 3"올라가 선을 긋고 각각 3%"나아가 밑위점(f, b)으로 정한다.

0~5는 충분한 맞음새를 위한 여유분 5/8"이며, 앞중심선까지 자연스러운 선으로 연결한다. 1~6은 허리에서 힙까지 길이로 보통 8"미만이다. 6~7은 0~1길이에 여유분 5/8"를 더한 길이이다.

밑위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f와 6사이 c의 대각선 길이는 1 1/4"이며, f와 f1의 길이(밑위)는 1 1/4"미만으로 하여 b와 b1을 합친 밑위 길이는 총 2 1/8"정도가 되게 한다(2 1/8": size 8-14, 2 3/8": size 16-18). f→6, b→7을 향할 때는 거의 직선으로 그리고 f, b의 각도는 90°를 유지한다. b와 7사이 d의 대각선 길이는 2 1/4"이며 뒤 밑위도 마찬가지로 제도하고, f1과 b1이 만나 각진 곳을 자연스럽게 그려 준다(B의 점선). 옆선 밑단 끝점과 f1, b1을 잇는 선의 중심에

서 5/8" 수직으로 올라가(C의 e) 자연스럽게 다리 부분을 파준다. 또한 밑위의 편안함을 위해 거셋(gusset)을 대기도 하는데 앞·뒤 밑위 시작하는 점선으로부터 5/8" 올라가 직선으로 잇고 펼쳐서 거셋을 완성한다. 만약, 옆선에 트임을 준다면, 옆선 밑단 끝점에서 4~4 1/2" 올라간 곳에 트임을 주고 트임 끝과 밑단 사이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그려 준다. 식서는 원래 방향으로 하거나 유연한 흐름을 위해 바이어스 방향을 쓰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니커의 평면 구성은 팬티나 바지에 비해 밑위선을 아래로 내려 헐렁하게 맞도록 하며, 밑위를 하나로 연결하고 편안한 착용을 위해 거셋이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일반 바지처럼 허리에 다트보다는 엘라스틱으로 맞추어 풍성한 여유분을 주고, 뒷허리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엘라스틱으로 인한 부풀림을 위해 여유분을 높여 준다.

(2) 입체 구성⁴¹⁾

입체 구성도 평면 구성과 같이 비신축성 직물의 허리에서 개더가 있고 밑단에서 퍼진 일반적인 스타일로 살피볼 것이다.

㉑ 바디의 오른쪽에 원하는 모양으로 테이프를 두른다: 허리선, 앞·뒤 중심선, 밑위선, 옆선, 밑단선 등. 여기서 밑위선(앞허리선~밑위~뒤허리선까지)은 헐렁하게 맞도록 밑위 솔기보다 1"아래로 두르며(a의 점선), 이로 인해 2"이상의 여유분을 가질 수 있다.

천을 18 1/2"×5"로 두장 준비하고 C.F.와 C.B.을 표시한다.

㉒ 개더, 턱, 혹은 플리츠로 천의 폭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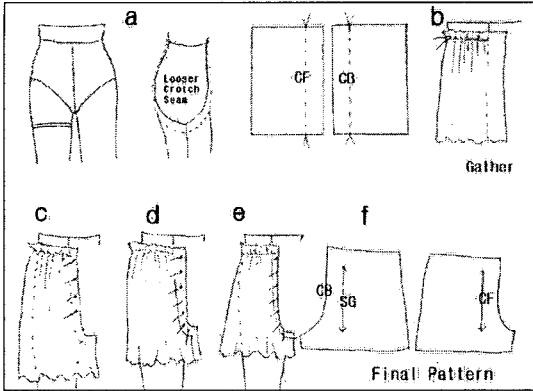
㉓ 밑위 위까지 앞중심에 핀을 차례로 꽂고 시접만 남기고 천을 자른다.

㉔ 헐렁한 밑위선에 맞춰 핀을 꽂고 시접만 남기고 천을 자른다.

㉕ 힙선까지 옆선에 핀을 꽂고 천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도록 한다. 뒤판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표시한 뒤, 바디에서 떼어 내어 종이에 옮겨 그

린다.

① 완성된 패턴이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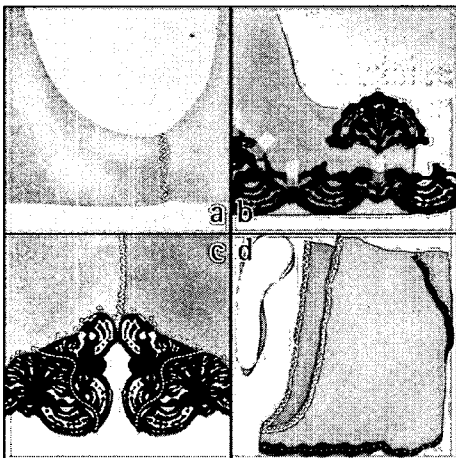


〈그림 13〉 니커 드레이핑

이상과 같이 니커의 드레이핑을 살펴보았다. 니커는 팬티나 바지보다 헐렁하게 맞기 때문에 원래의 밑위선보다 1" 아래로 두르고 전반적으로 여유 있게 드레이핑을 하며, 앞·뒤 밑위 중심에서 거셋을 넣는다. 식서는 원래 방향으로 하거나 바이어로 한다.

(3) 제작 기법

니커는 주로 비신축성 소재가 많이 쓰이며, 슬립과 마찬가지로 재단이나 봉제시 종이를 깔고 한다.



〈그림 14〉 니커 제작기법

② 양 옆선을 스티치한 후,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 혹은 편평한 오버록으로 시접을 처리한다.

③ 가장자리 장식을 한다. 피콧이나 리본으로 장식(그림 2)하거나 깎문이나 예징을 이용하여 직선 혹은 곡선으로 레이스 장식(그림 3,4)할 수도 있다. 만약, 아플리케를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장식한다면 레이스의 올이 풀리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모티브를 자르고 이 모티브들을 의복의 겉면에 나열하여 편이나 테이프고 고정시킨다.

④ 겉면에서 레이스 윗부분을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하고 안쪽에서 스티치선 가까이 남는 천을 잘라낸다. 레이스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그림처럼 옆선에 트임도 넣을 수 있다. 앞중심, 뒷중심, 밑위를 스티치한다.

⑤ 허리둘레에 엘라스틱 밴드 대는 방법은 윗글 엘라스틱 처리 방법 중 디자인에 따라 선택한다(그림 5~6참고).

이상과 같이 니커는 가장자리를 피콧, 리본, 레이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장식할 수 있으며, 허리는 엘라스틱으로 처리한다. 비신축성 소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재에 쓰이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신축성이 들어갈 경우, 정도에 따라 직선 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를 조절하여 쓴다.

3) 캐미 니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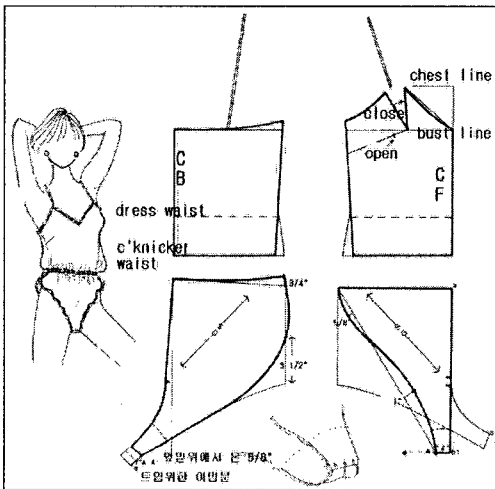
캐미 니커는 캐미술과 프렌치 니커를 결합한 올인원(all in one)으로 밑위 거셋(crotch gusset)에서 트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하의가 붙어있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앉을 때 필요한 추가의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 즉, 허리에 엘라스틱을 대어 블루종(blouson) 스타일로 상·하의를 연결한 스타일은 힙선 혹은 허리선 위로 2"~3" 여유분을 주고, 허리에 엘라스틱이나 시접 없이 상·하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타일은 3/4"의 여유분을 준다.⁴²⁾

(1) 평면 구성⁴³⁾

평면구성은 윗글에서 설명한 허리에 엘라스틱을

덴 블루종 스타일과 상·하의에 허리 시접없이 매끄럽게 연결된 스타일의 두 패턴을 살펴볼 것이다.

블루종 스타일(그림 15)은 기본 페티코트 슬립(그림 8실선)의 다트선을 제외한 상의 외곽선을 옮겨 그리고 기본 바디스 블록의 허리선에서 3"내린다. 왜냐하면, 페티코트의 높은 허리선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며, 이 3"는 1.5"의 블루종 효과를 줄 것이다. 옆선을 연장하여 내리고, 새로운 캐미 니커의 허리둘레는 머리 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가슴둘레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어깨끈 쪽 가슴 다트를 닫고 옆선 가슴쪽으로 옮긴 뒤, 가슴 다트를 유두점에서 1 $\frac{1}{4}$ " 나와 다시 그린다. 네크라인을 자연스럽게 다시 그린다.



〈그림 15〉 캐미니커 블루종 드레프트

하의는 니커(그림 12)의 외곽선을 옮겨 그리고 하의 뒤판의 밑위는 니커의 밑위와 똑같다. 옆선은 상의의 옆선과 중복된 상태에서 1"올라간 점과 옆선 아래 끝점에서 3 $\frac{1}{2}$ "올라간 점을 곡선으로 잇고 그 곡선이 밑단 중간까지 오도록 잇는다. 앞판은 앞중심(a~b)의 길이를 재어 a~b1까지 같은 길이가 되도록 수직으로 내린다. 왜냐하면 앞중심에 솔기선 없이 앞판이 굽선으로 재단되기 때문이다. 스케어가 되도록 밑위선을 그리고 뒤판 밑위 길이와 같게 한다. 앞판 옆선 위 끝점과 밑위 끝점을 잇고 그 선을

삼등분한다. $\frac{1}{3}$ 점과 옆선 끝점을 잇는 선의 중심에서 밖으로 $\frac{1}{8}$ "나간 점과, $\frac{1}{8}$ 점에서 안으로 1"들어간 점을 곡선으로 잇는다. 밑위 트임을 위해서 앞 밑위 $\frac{1}{8}$ "를 뒤 밑위로 옮겨야 앞에서 여닫기 쉬우며, 트임을 위한 여밈분($\frac{1}{2}$ "~ $\frac{3}{8}$ "을 더해 준다(그림 15).

허리 시접없이 연결된 스타일은 상의는 기본 페티코트 슬립(그림 8의 실선)을 옮겨 그리고 하의는 니커(그림 12)를 옮겨 그린다. 이 때 두 패턴의 힙선을 맞추면 편안한 맞음새를 위해 허리선에서 $\frac{1}{8}$ "~ $\frac{1}{4}$ "의 공간이 생길 것이며, 간단하게 패턴을 완성할 수 있다(그림 8의 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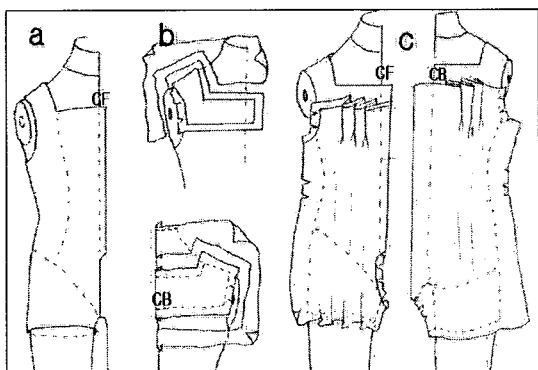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캐미 니커는 슬립(캐미슬)과 같이 비신축성 직물일 때는 머리 위로 써서 착용하기 때문에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같아야 하며, 매끄럽게 밀착된 맞음새를 위해 가슴 다트를 두배로 하고 식서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한다. 또한 올인원이기 때문에 허리선에서 상·하로 여유분을 주어야 하며, 앞판을 굽선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하의의 앞중심을 수직으로 내린다. 밑위 트임을 위해 앞밑위의 일부를 뒤밑위로 옮기고 여밈분을 더해 준다.

(2) 입체 구성

드레이핑은 비신축성 직물일 경우 식서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고 신축성 직물일 경우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를 정한다. 본 고에서는 요크가 있는 스타일로 살펴볼 것이며, 천은 (요크 라인에서 밑단까지 길이+5")×(1/2허리둘레+4") 한 장과 20"×11" 두장을 준비한다.

- ① 디자인에 따라 오른쪽 바디에 테이프를 두른다.
- ② 앞·뒤판 요크를 식서 방향으로 드레이핑한다. 앞중심에 핀을 꽂고 요크선과 어깨에 핀을 꽂은 뒤, 시접을 제외하고 남은 천을 잘라낸다. 앞중심에 단추 여밈분을 준다. 뒤판 요크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③ 몸판을 드레이핑한다: 앞중심에 핀을 꽂은 뒤, 인체 움직임에 따른 개더나 턱을 만들고 천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도록 한 뒤, 옆선 드레이핑을 하고 허리에 가윗밥을 준다. 헐렁한 밑위선에

맞춰 핀을 꿰고 시접만 남기고 천을 자른다. 밑위선을 원래 밑위보다 1" 이상 아래로 두르면 움직임에 필요한 2"이상의 여유분이 생긴다. 뒤판도 같은 방법으로 드레이핑하고 표시한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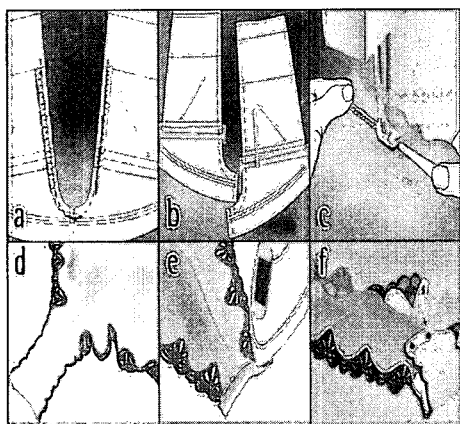


〈그림 16〉 캐미니커 드레이핑

이상과 같이 캐미 니커의 드레이핑은 올인원이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앉는데 필요한 충분한 여유분의 밑위 길이를 필요로 하며, 식서는 신축성에 따라 원래 방향으로 하거나 바이어스 방향으로 한다.

(3) 제작 기법⁴⁴⁾

천을 배치하기 전에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식서 방향을 정한다.



〈그림 17〉 캐미 니커 제작기법

㉔ 스타일 혹은 천의 종류에 따라 밑위선에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 즉, 인체의 앞허리선~밑위~뒤허리선까지의 밑위 길이(줄자)를 재고 입었을 때의 여유분(니트는 신축성에 따라 1/2"~1", 우븐은 1 1/2"~3")을 더한다(A). 패턴의 밑위 길이(B)를 재어 오차(A-B=C)를 낸다(그림 17).

㉕ 앞·뒤 패턴에서 힙선과 밑위선 사이를 벌려 오차를 반으로 나눈 분량(C/2)을 더해 주어 밑위 길이를 늘려 준다.

㉖ 만약, 블루종 스타일이라면 허리둘레보다 4"~6" 짧게 엘라스틱을 준비한다. 엘라스틱 양끝을 1/2" 겹쳐 지그재그 스티치로 이은 후, 허리둘레 시접 위에 올려 놓는다. 천과 엘라스틱을 각각 4등분하여 맞춘 후, 엘라스틱을 당기면서 엘라스틱의 중심을 스티치한다.

㉗ 밑위를 스티치하고⁴⁵⁾ 레이스 혹은 피콧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다(그림 2.3.4.14참고).

㉘ 밑위 여밈을 위해 6"×1 1/2"의 바이어스 조각을 준비한다. 바이어스 조각을 반으로 접어 다리고 그림처럼 밑위 겹에 올려 놓는다. 밑위와 함께 가장자리에서 1/2" 들어가 스티치하고 바이어스 조각을 안으로 넣어 다린다.

㉙ 바이어스 조각의 양끝을 장식하고 맞닿는 조각 안쪽에 스냅을 3개 단다.

이상과 같이 캐미 니커는 움직임을 위해 힙선과 밑위선 사이를 벌려 밑위 길이에 여유분을 주거나 블루종 스타일처럼 허리선에서 여유분을 줄 수 있다. 또한, 앞·뒤 밑위를 합쳐 하나로 만들고 트임을 위한 여밈분(바이어스 조각)을 주어야 한다. 가장자리는 윗글에서 설명한 장식적인 기법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직선 스티치 혹은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이상과 같은 슬림, 니커, 캐미 니커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을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표 2>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2〉 슬립, 니커, 캐미 니커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슬립 니커 캐미니커	비신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스방향 배치 · 다트선無: 가슴둘레만큼 허리둘레넓힘 · 다트선有: 다트선이나 절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스방향 배치 · 자연스럽게 인체에 맞도록 드레이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스방향 배치 · 일반 소재에 쓰이는 기법 가능 · 직선 스티치
	신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배치 · 다트선 제거 · 약간 작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배치 · 당기듯이 드레이핑하여 인체에 밀착 · 다트선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배치 · 당기면서 직선스티치 · 지그재그 스티치 · 엘라스틱 덧대기

III. 결론

본 연구는 인체를 장식하는 속옷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 및 봉제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주로 이용한 속옷인 슬립(혹은 캐미슬)과 니커, 캐미 니커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등 구성요소와 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고, 그림,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구성과 제작 기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세기 후기로 하였는데, 이 시기는 이너 아우터웨어가 가시화되어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장식적인 기법은 슬립(캐미슬), 니커, 캐미 니커 등의 제작 방법에 신축성·비신축성 직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솔기는 움직임에 따른 신축성을 주는 지그재그 스티치가 좋으며, 가장자리를 레이스나 리본, 파이핑, 엘라스틱 등으로 마무리할 때 소재의 울이 풀리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스티치로 손쉽게 장식할 수 있다.

평면 구성은 비신축성 직물일 때는 머리 위로 써서 착용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가슴둘레만큼 넓히고 매끄럽게 밀착된 맞음새를 위해 가슴 다트는 두 배로 늘려주며, 유연한 흐름과 여유분을 위해 식서 방향을 바이어스로 한다. 신축성 직물일 때는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를 정하고 다트선을 없앤다. 또한, 비신축성·신축성 모두 일반 의복에 비해 적

은 치수로 제도되며, 비신축성의 경우 바이어스 식서로 보완될 수 있다.

입체 구성은 비신축성 직물일 경우, 식서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여 인체에 자연스럽게 맞도록 드레이핑하며, 신축성 직물일 경우, 신축성이 큰 방향으로 식서를 정하고 천을 당기면서 드레이핑하여 다트선 없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니커나 캐미 니커의 밑위선은 일반 바지의 밑위선보다 1"이상 아래로 헐렁하게 두르고 드레이핑하여 충분한 여유분을 준다.

제작 기법은 신축성·비신축성 직물에 쓰이는 봉제 기법이 모두 쓰이며, 비신축성일 때는 직선 스티치로 하며, 신축성 직물일 때는 당기면서 직선 스티치 혹은 지그재그의 폭과 간격을 조절하면서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의복의 솔기나 가장자리는 피콧, 리본, 레이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장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속옷에 주로 사용되는 장식적인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주로 이용한 속옷인 슬립(혹은 캐미슬)과 니커, 캐미 니커의 평면 구성, 입체 구성, 제작 기법 등 구성요소와 기법을 살펴 보았다.

20세기 이후 속옷의 봉제 기법이나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이너 아우터웨어의 개념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고 본다. 또한, 겉옷에 비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이하고, 마켓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관한 지속적이고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Martin, R. & Koda, H. (1993). *Infra apparel*.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18.
- 2) 오경숙 (1985).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이인자 (1986). 서양복 내의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여성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순자 (2000).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16세기~20세기(전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양취빈 (1995). 여성복식에 나타난 속옷패션에 관한 연구-낭만주의 시대에서 현대까지-. 경북실업전문대학 논문집, pp. 155-179.
- 6) 이순홍 (2000). Underwear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50, pp. 129-144.
- 7) 최원 (1994). 서양 여성속옷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속옷의 걸맞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채석옥 (1999). 예로티시즘 표현 양식을 응용한 속옷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본 연구의 II부분 1.정의 및 범주의 범주부문 참고.
- 10) <그림 9> 하단 왼쪽 그림 참고
- 11) <그림 11> 상단 오른쪽 그림 참고
- 12) <그림 15> 왼쪽 그림 참고
- 13) Thesander, Marianne (1997). *The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Ltd, pp. 208-210.
- 14) Bardey, Catherine (2001). *Lingerie*. New York: Black Dog & Leventhal Publishers, Inc., pp. 21-23.
- 15) Bardey, Catherine (2001). *op. cit.*, p. 22.
- 16) Tsukamoto, Koichi (1982).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FIT, p. 6.
- 17) Shaffer, Claire (1994). *Fabric sewing guide*. Pennsylvania: Chilton Book Company, pp. 212-214, 242-243.
- 18) Singer (1986). *Sewing specialty fabrics*. Minnesota: Cy DeCosse Incorporated, pp. 22-25, 43-49.
- 19) 전해정, 김지연. 20세기 코르세트리의 구성 및 제작기법. 복식문화연구, 11(4), pp. 565-567.
- 20) Singer (1991). *Sewing lingerie*. Minnesota: Cy DeCosse Incorporated, p. 27.
- 21) Morris, Karen (2001). *Sewing lingerie that fits*. Newtown: Tounnton Press, pp. 40-55.
- 22) Singer (1991). *op. cit.*, pp. 40-59.
- 23) 최은경 (2003). Sewing Technique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24) Singer (1986). *op. cit.*, pp. 44-45.
- 25) Singer (1991). *op. cit.*, pp. 41-52.
- 26) Singer (1991). *op. cit.*, p. 41, 42, 44.
- 27) *ibid.*, p. 51.
- 28) 허리둘레는 2"-3", 다리둘레는 1"-2", 넥크라인은 1"-2" 각 둘레보다 짧게 하고 진동 둘레는 그대로 쓴다.
- 29) Bones, Jan (2000). *Lingerie secret*. Iola: krause Publications, pp. 117-119.
- 30) Willett, C. & Cunnington, P. (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 246.
- 31) Bones, Jan. *op. cit.*, pp. 33-34.
- 32) Hagggar, Ann (2001). *Pattern cutting for lingerie*. London: Blackwell Science, pp. 42-51.
- 33) 전해정, 김지연. *op. cit.*, pp. 567-568.
- 34) Cloake, Down (2001). *Lingerie design on the stand*. London: B.T. Batsford Ltd, pp. 52-53.
- 35) Bones, Jan. *op. cit.*, pp. 36-41.
- 36) Bones, Jan (2000). *op. cit.*, pp. 37-41.
- 37) Singer (1991). *op. cit.*, p. 73.
- 38) Bones, Jan. *op. cit.*, pp. 45-47.
- 39) Cloake, Down (2001). *op. cit.*, p. 49.
- 40) Ann Hagger. *op. cit.*, pp. 88-89.
- 41) Cloake, Down. *op. cit.*, pp. 48-49.
- 42) Cloake, Down. *op. cit.*, p. 57.
- 43) Hagger, Ann. *op. cit.*, pp. 90-95.
- 44) Singer (1991). *op. cit.*, pp. 92-95.
- 45) 전해정, 김지연. *op. cit.*, pp. 570-571.